

[전라도]



(30) 오병문 前 교육부장관 <하>

■ 전라도 역사 이야기

-순창 팔덕

“93년 YS와 조찬하며 장관 면접시험 봤죠”

“김영삼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상도동 집으로 올라와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절대 밖에 얘기해서는 안 되고 말이 새어나가도 안 된다고 했어요. 철저히 비밀리에 올라와 달라고 요구했어요”

정년 퇴임 후 2대 전남발전연구원장을 맡고 있던 오병문(81) 전 교육부장관은 1993년 1월 말까지 걸려온 이 전화를 받고 다음날 바로 상경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언론의 레이더망에 걸렸다.

“광주일보 한 기자가 당시 지산동 집으로 와서 막 출발하려는 저를 불잡고 취재를 했으며 한 언론사는 틀케이트에서 저를 기다리면서 취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에 볼일이 있어서 간다’고만 말했어요”

오 전 장관은 서울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다음날 오전 7시 상도동 김영삼 전 대통령 집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조찬을 함께했다.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미역국을 드셨고 저는 계란프라이 두 개를 먹었어요. 그리고 2층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종의 면접이었지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창가에서 길을 내려다보며 저에게 ‘전두환이한테 가백연금을 당하는

‘전교조 해직교사 문제 대화로 해결’

YS에 세번째 견의 후 ‘OK’ 받아내

등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문을 연 뒤 ‘전교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시간을 두고 알아봐야 한다’고 답했어요. 당시 만 해도 제가 ‘장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거의 못했어요” 이후 한 달이 거의 다 돼서 청와대 부속실장에게 전화가 왔다. 2월 26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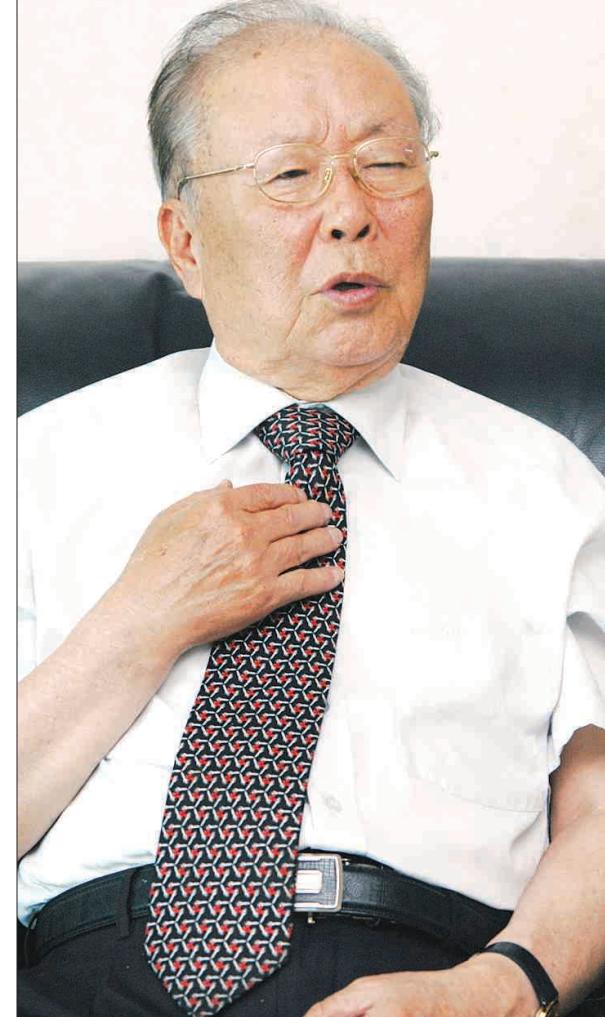
“지난달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왔을 때 광주 프라도호텔 접견실에서 잠시 봤어요. 가족 안부를 묻는 등 일상적 대화만 나눴지요”

오 전 장관은 취임 후 전교조 해직교사 문제, 한총련 해체 문제, 한의대 수업 거부, 대학 입시 비리 등을 겪는 등 바람잘 날 없는 나날을 보냈다.

특히 오 전 장관은 전교조의 복직 투쟁과 관련, 그해 4월 8월 당시 정해숙 전교조 위원장과 첫 대화를 시작하며 협상의 물꼬를 뗐다. 1993년 1월 말 동국대에서 전국 1천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진 해직교사 복직촉구대회를 시작으로 전교조 지도부의 단식농성, 교사서명, 집회 등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당시 교육부는 대화를 거부했다.

하지만, 이 분위기를 바꾼 것은 오 전 장관이었다.

“당시 저는 여러 명의 교사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내용은 대부분 ‘전교조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해직이 돼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교조와 대화를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전교조 해직교



오병문(오른쪽에서 세번째) 전 장관이 1993년 재임시 학술원상 수상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는 황인성 당시 국무총리.

정 위원장은 “교육부의 방침을 수용하거나 복직문제를 종결하는 차원에서 아니라 학교현장으로 돌아가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와 더불어 교육개혁을 실천하고, 전교조 합법화를 앞당기기 위해 복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문제로 고민을 하던 그해 5월에는 1천400여명이 관련된 대형 부정입학 사건이 더졌다.

“장관 아들이 고대에 부정입학 하는 등 사건이 터지자 대규모 감사로 모든 정황을 파악했어요. 하지만 교육계에 쏟아지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힘들었어요. 이해구 당시 내부장관은 ‘걱정하지 마리’고 했으나 저는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어요. 그러자 얼마 되지 않아 대통령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무 생각 말고 더해라’고 말했지요”

재임 10개월째인 1993년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첫 작품인 황인성 내각은 모두 사표를 제출했다.

93년 대학 부정입학사건 터지자

대통령에 부담 줄이기 위해 내각 총사퇴

약력

- ▲ 1928년 전북 남원 출생
- ▲ 광주사범학교, 서울대 교육학과 졸업
- ▲ 목포여자고등학교·광주사범학교 교사
- ▲ 전남대 사범대학장, 총장
- ▲ 교육부 장관
- ▲ 동신대 교육학과 석좌교수, 명예교수

사 문제를 풀어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대통령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고 답했지요. 2주 후 다시 찾아갔으나 같은 대답을 들었고 3번째 찾아가자 ‘생각해 봤느냐’고 물더군요. 그래서 ‘해직교사 문제 해결 못하면 정권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대통령이 ‘장관 소신껏 해보세요’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곧 해결될 것 같던 복직 문제는 이후 7월까지 4차례의 실무협상과 오전 장관과 정 위원장과 한 차례 더 가진 면담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탈퇴 후 교단에 복귀하는 조건부 복직 ▲선별 복직 ▲해직교사 설득 등의 방침을 10월 전교조가 받아들이면서 전교조 해직교사 문제는 일단락됐다. 당시

“전면적 개각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지요. 그리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특강을 하고 나오는데 제 사표가 수리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일부 장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때 장관을 그만둬야 했지요”

이후 그는 광주에서 지역원으로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여든을 넘긴 최근에도 유네스코 광주전남협의회 상임고문, 백지청소년교육원 상임고문, 가톨릭 청소년수련원지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아직도 건강에는 자신이 있어요. 1주일에 한 번 정도 윤재룡 전 서남대 총장, 김재문 전 전남대 공대학장, 박옥규 전 원광대병원장 등과 라운딩을 하고 매일 아침 조깅을 하면서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 =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황룡이 승천하는 형세 팔왕·태촌엔 남근석도

장수(長壽)·장류(醬類)의 고장 순창(淳昌) 북서쪽에 1914년 팔동(八等)과 덕진(德進)이 합친 팔면면이 위치한다.

용신산(220m) 기슭 용신리 ‘활꾸지’라 했던 사정(射亭)마을이 소재지로 황룡이 등공하는 형세이다.

팔덕은 서북방으로 광덕산(584m), 강천산, 무이산이 병풍이고, 남쪽 애미산은 마파람 장풍이다. 소금강 강천산 복천(福川)은 구룡 삼지내 경천(鏡川), 읍내 옥천(玉川)으로 서출동류(西出東流)한다.

강천산은 본디 용천산(龍泉山)으로 1981년 전국 최초 군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청계리 통대숲(桶竹林村)은 팔동방터로 어·탁·양씨 팔동(八童)이 등과한데 기원했고, 1788년 건립한 무이서원터가 있다.

강천사(剛泉寺) 개찰 건너에는 1744(영조20)년에 세워진 삼인대(三印臺)가 있다. 다만 1515(중종10년) 순창군수 총암(沖庵) 김정(金淨) 1486~1521), 담양부사 늘재(訥齋) 박상(朴祥) 1474~1530), 무안현감 석현(石軒) 유옥(柳沃) 1487~1519)이 각자 관인을 소나무 사이에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상소할 것을 결의한 곳이다. 신(愼)씨 복위와 중종반정 때 공신 박원종, 성희안, 류순정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호남 절의(節義) 정신의 사원이다.



산동리 팔왕과
창덕리 태촌마을

에는 1979년 지방민속자료 14·15호로 지정된 남근석(男根石)이 있다. 5백년 전 청상과부가 아이를 생산코자 세웠다고 하는데, 그 모양이 매우 리얼리티하다. 화강암 재료에 연봉석미륵(蓮捧石彌勒)으로 팔왕은 암미륵, 태촌은 수미륵이며, 높이 188.165cm로 견고(乾坤) 관계다.

팔왕(八王)마을은 광덕산(廣德山)으로 여근곡인 인정지(人精池)가 있어 양(陽)을 보완하기 위해 남근석을 세우고, 비보숲도 조성했다. 1978년 지은 동각과 새동각 주위 숲에는 소나무 8그루, 버드·서나무 각 2그루, 느티·괭나무 각 1그루가 있다.

태촌(台村)마을은 광덕산 백이 태봉산(太蓬山·옥녀봉 207m)으로 연결된 소구리 또는 노태집과 형국으로 팔왕 남쪽이다. 애미산이 높이 솟아 마을을 누르는 형세이므로 진압기 위해 골짜기 남근석을 세우고, ‘미륵정이’라 불렸다.

구룡리는 구룡쟁주(九龍爭珠)형으로 물무들에 수구(水口) 백이 돌탑이 있다. 선돌(立石)과 새들(新堀) 느티나무 당선을 비롯해 9기의 입석이 분포한다. 모두 곧이 세워져 고추가 유명한 순창을 대변한 듯하다.

/김경수(사향토문화진흥원장)

평양대부흥 100주년 / 광주 CBS 46주년기념

크리스천 대성회

광주여! 청년이여! 두 날개로 날아오로라



을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 일 시 : 2007. 6. 12(화) 오후 6시

■ 장 소 : 광주 구동 실내체육관

◆ 주최 : 광주 CBS

◆ 후원 :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 광주·전남 성시화 운동본부
전라남도 기독교 연합회, 광주·전남 학원 복음화 협의회

■ 광주 CBS 라디오 FM 103.1MHz ■ CBSTV 위성 – 412번, 케이블TV – 광주 42번, 60번/ 담양42번/ 목포59번



그룹 에이맨

소향

하이 프레이즈 찬양단(풍성한교회)

※ 추첨을 통해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렌지, 진공청소기, 전기밥솥 등 푸짐한
사은품을 드립니다.